五足吉林 面向全国 影响世界
길림신문
吉林省委朝鮮文机关报
吉林朝鮮文报综合新闻

길림신문

2025 년 4 월 26 토요일 음력 3 월 29 일

기사 제보 이메일 : news@jlcxwb.com

吉林朝鮮文报 제 6027 호 · 8 개면 http://www.jlcxwb.com.cn 国内统一连续出版物号：CN22-0030/-CH 邮发代码：11-13

호옥정 , 훈춘시 왕청현 연길시에서 조사연구

우세특색산업 발전시키고 대외무역 증량과 질 향상 추진하여 민족변강지역 발전의 활력과 동력 불러일으켜야

4 월 23 일부터 24 일까지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호옥정은 현역경제, 산업발전, 외자 대외무역 등 사업과 관련해 훈춘시, 왕청현, 연길시에 가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와 정부 사업회보를 청취하고 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변경지역의 자원 지역 우세에 발붙이고 특색산업을 서둘러 육성, 장대시키며 개방의 플래트홈 기능 역할을 발휘시키고 대외무역 증량과 질 향상을 추진하며 흥변부민, 변강안정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민족변강지역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에너지를 주입해야 한다.

민영기업은 국제무역시장을 개척하는 주력군이다. 호옥정은 기업의 생산경영 상황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길림자금동업유한회사에서 그는 기업의 원료공급, 제품종류, 지능야금 등 상황을 현장에서 료해한 후 자원의 종합리용 수준을 제고하고 설비갱신, 기술개조를 적극 전개하여 제품의 핵심적인 경쟁력과 본질적인 안전 수준을 제고하도록 기업을 격려했다. 관련 복장제조기업에서 호옥정은 발전신심을 확고히 하고 과학기술 능력을 강화하며 시장 점유률을 확대하고 브랜드 지명도를 한층 더 높이도록 기업을 격려했다. 로희식재료농업발전유한회사에서 그는 '직영 + 대리' 상업모식을 혁신하고 생산 규모를 확대하며 산업사슬을 연장하여 끊임없이 크고 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기식품양조주식유한회사에서 호옥정은 지속적으로 기술을 최적화하고 더욱 좋은 표지성 제품을 더욱 많이 연구개발하며 다양한 마케팅 모식을 모색하고 '공업관광'의 새로운 업태를 발전시키며 특색 브랜드를 강화하라고 기업을 격려했다. 위트생물공정유한회사에서 호옥정은 혁신을 강화하고 천방백계로 주문을 쟁취하며 시장을 개척하고 만부하 생산으로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을 기업에 당부하였다. 연변북일화식품과학기술유한회사에서 호옥정은 원자재 우세를 잘 리용하여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더욱 많은 농산물이 현지에서 전환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라고 기업을 격려했다. 길림한정인삼유한회사에서 그는 지속적으로 투자 강도를 높이고 더욱 많은 고품질 제품 기술을 길림에 가져와 협력발전의 '새로운 블루오션'(新蓝海)을 개척하기를 희망했다. 매번 기업에 도착할 때마다 호옥정은 관련 부문들이 '기업을 돕는 것은 자신을 돕는 것'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기업의 실제문제를 참답게 해결하며 원가를 낮추고 부담을 줄이며 더욱 좋은 발전을 실현하도록 기업들을 도와줄 것을 요구했다.

훈춘시 종합보세구는 길림성 개방확대의 중요한 플래트홈이다. 물류분배쎈터에서 호옥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종합보세구의 기능 역할을 발휘하여 다국전자상거래, 보세가공, 보세물류 등 경영형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글로벌 물류 로선, 무역국가별 확장과 대외무역의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해야 한다.

훈춘시 발해고진관광지는 '5.1'절에 영업하게 되는데 호옥정은 관광지의 경영형태를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력사문화의 함의를 심화하며 몰입식 소비의 새로운 환경을 구축하여 문화관광의 소비잠재력을 충분히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옥정은 연변대학에 가서 학교 발전 려정, 특색학교 운영, '쌍일류' 건설 상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지속적으로 우세 학과를 강화하고 국제교류협력을 심화하며 과학기술혁신, 성과 전환을 조직적으로 추진하여 변강의 번영과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할 것을 격려했다.

조사연구 도중에 호옥정은 한 방화초소에 찾아가 삼림방화사업을 검사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면 날씨가 건조하므로 방화 조치를 세밀하게 시달하고 산림의 변두리 지대에서 곡식대를 소각하는 등 규정을 어기고 불을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 길림일보

GDP 성장률 5.5%! 1 분기 길림성 경제운행 좋은 출발 !

길림성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 성 상하가 새로운 발전 리념을 견지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면서 전 성 경제가 량호한 출발을 실현했다.

통일적인 채산 결과에 따르면 전 성 1 분기 지역총생산액 (GDP) 은 3,182 억 200 만원으로 동기 대비 5.5% 성장하여 전국 수준보다 0.1% 포인트 높았다.

산업별로 보면 제 1 산업 증가치는 162 억 9,600 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제 2 산업 증가치는 947 억 2,000 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다. 제 3 산업의 증가치는 2,071 억 8,600 만원으로 동기 대비 4.4% 늘어났다.

1. 농림목축어업 생산 형세 량호

1 분기 전 성 농림목축어업의 증가치는 165 억 1,700 만원으로 동기 대비 4.6% 증가되였다. 그중 재배업, 림업, 목축업, 어업은 동기 대비 각각 5.7%, 9.9%, 4.4%, 6.3% 증가되였다. 1 분기 소 출하는 8.8% 증가했다. 양과 가금류 출하는 각각 9.5%, 1.4% 증가했다.

2. 공업 빠른 성장 실현

1 분기에 전 성 규모이상 공업 증가치가 동기 대비 9.3% 성장하여 지난해보다 7.2% 포인트 빨라졌다. 그중 장비제조업이 쾌속적으로 발전하여 증가치가 동기 대비 27.1% 증가되였다. 생산량으로 보면 1 분기 전동차 (动车组) 생산은 170 대로 전년 동기 대비 93.2% 증가했다. 도시 궤도차량은 146 대로 전년 동기 대비 69.8% 증가했다.

3. 건축업 성장 속도 다소 제고

1 분기 전 성 건축업 총생산액은 135 억 900 만원으로 동기 대비 4.7% 성장하여 지난해보다 4.4% 포인트 빨라졌다. 전 성의 신축 분양주택 판매 면적은 163 만 9,500 평방메터로 동기 대비 5.0% 감소하여 하락폭이 1~2 월보다 11.4% 포인트 줄어들었다.

4. 써비스업 안정적 성장 유지

1 분기에 전 성 써비스업의 증가치가 동기 대비 4.4% 성장하여 전 성 지역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1% 였다. 업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 증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4.3%, 교통운수, 창고저장 및 우편업 증가치는 4.6%, 숙박 및 음식업 증가치는 2.9%, 금융업 증가치는 0.5%, 부동산업 증가치는 1.9% 증가했다.

5. 대상건설 질서 있게 추진

1 분기 전 성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 증가 속도가 작년 한해보다 13.1% 포인트 빨라졌다. 산업별로 보면 제 1 산업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69.6%, 제 2 산업 투자는 21.7%, 제 3 산업 투자는 0.3% 감소했다.

6. 소비품시장 지속적 발전

1 분기 전 성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1,088 억 4,000 만원으로 동기 대비 4.8% 성장, 지난해보다 1.3% 포인트 빨라졌다. 그중 한도액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448 억 9,300 만원으로 동기 대비 6.1% 증가되였다.

/ 길림일보

요즘 들어 연변의 진달래가 한창 개화기를 맞으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와 함께 화룡시 2025 년 진달래문화관광시즌에 진달래로 소문난 화룡시 서성진 진달래촌과 팔가자진 남구촌은 5.1 절 련휴의 좋은 나들이 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사진은 화룡시 팔가자진 남구촌의 진달래 언덕에서 꽃놀이를 즐기는 관광객들.

/ 박경남특약기자

제 2 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 5 월 15 일 장춘서 개막

전역이 련동하여 동북 문화의 새로운 랜드마크 만들려

4 월 23 일, 제 30 번째 '세계 독서의 날'을 맞아 제 2 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 소식공개회가 장춘에서 있었다. 회의에 따르면 제 2 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가 '책향기 풍기는 동북, 독서로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5 월 15 일부터 19 일까지 장춘농업박람원 1 관—5 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동북도서교역박람회는 책을 매개로 출판업계의 교류 플래트홈을 구축하고 문화 혜민의 실천적 조치를 통해 전민독서를 심화하며 서향사회 공동 건설을 목표로 문화 소비 새로운 생태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조직위원회는 제 2 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를 알심들여 계획했는바 전역이 련동하여 동북 문화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면적 규모 확대 및 질적 제고를 실현하게 된다.

주회장 전시 면적은 3 만평방메터로 1 회 전시 면적에 대비 약 50% 확대되였으며 전시 판매 도서는 40 만종을 초과하여 국내 동종 전시회와 견줄 만한 규모이다. '하나의 핵심, 여러 지점, 전역 몰입, 전국 확산'이라는 립체적 구조를 구축하여 주회장외에도 길림성내 지역 특색을 가진 12 개 시 (주), 현의 신화서점, 길림성자연박물관 등 5 개 박물관 (기념관), 그리고 장춘의 대표 문화관광 IP '저유산 (这有山)' 상업복합체를 포함한 총 18 개 분회장를 설치하여 독서 열기를 기층에로 전파하게 된다. 동시에 10 여개 온라인 라이브 방송 채널을 개통하여 독자들의 클라우드 전시 관람 수요를 만족시키게 된다.

'뭇별'들이 빛나며 출판업계의 새로운 고지를 함께 구축하게 된다.

이번 동북도서교역박람회는 국내 대형 출판기업들과 유명 문화기관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중앙급, 국가급, 인민브랜드, 신화 계렬 출판발행기관들이 줄을 이어 전시회를 예약했다. 중국출판그룹, 인민교육출판사 등 대형 출판그룹들이 중량급 작품을 들고 등장하여 국가 문화의 높은 수준을 대표하는 우수한 작품들을 선보이게 된다.

전체적으로 약 700 개 문화기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중국 출판계의 '올스타 진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동북지역의 문화적 영향력을 재구축하고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시 기획을 혁신하여 독서 써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게 된다.

주회장에는 전국출판관, 서향산해 (书香山海) 관, 문화산업 · 무형유산관, 장서거래관 등 4 대 주제 전시관을 마련하고 주제출판전시구역, 주빈그룹전시구역, 인민교육출판사 전시구역, 동북지역판매구역, 전국출판류통판매구역, 전국도시출판사련합체전시구역, 전국대학출판전시구역, 전국민족문자출판전시구역, 국제서점전시구역, 도서관납품거래구역, 문화산업 · 무형유산전시구역, 고서적신지식 (동북 특별) 전시구역을 포함해 12 개 전문전시구역을 설치한다. 그중 주제출판전시구역에는 '진리의 빛 – 당의 혁신적 리론 출판 성과전'을 마련할 예정이다.

명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학 사상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킨다.

이번 동북도서교역박람회에서는 130 여차례에 달하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릴 예정인바 문학 정상 대화, 산업 최전방 론쟁, 전민독서 축제, 예술 다경계 교류 등 다각도로 구성된다. 산업 발전 측면의 문화산업 투자유치 행사, 장백산 독서 지수 및 전국 아동도서 독서 성장 지수 발표 등 활동; 문학 교류 측면의 '문학의 봄' 축제, '붉은 쏘파' 인터뷰 등 대형 행사; 출판 전문성 측면의 디지털 · AI 출판 시장분석 연구토론회, 여러차례의 신간 출판 기자회견 및 독서 캠페인 활동; 문화 공연 측면의 다채로운 문예공연과 대형 서화 전시가 독자들에게 풍성한 시청각 향연을 선물하게 된다.

산업의 경계를 넘어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개척한다.

이번 동북도서교역박람회의 또 다른 혁신적 특징은 책을 매개로 지역 산업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동북도서교역박람회는 '서향길림 독서시즌', '5·18 국제박물관의 날', '5·19 중국 관광의 날'과 맞물려 독자들에게 더 많은 부가 써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산업들이 전면적으로 련동하여 '도서박람회 + 전민독서', '도서박람회 + 박물관', '도서박람회 + 관광', '도서박람회 + 연구학습', '도서박람회 + 무형문화유산' 등 일련의 행사를 선보이게 된다.

혜택으로 민심을 따스하게 하며 문화 민생의 새 답안을 쓴다.

문화 혜택 사업은 중요한 민생 프로젝트로서 이번 동북도서교역박람회에서는 다양한 혜택과 편리한 정책을 선보여 독자들이 기분 좋게 전시를 관람하고 책을 구매하며 실질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길림일보

긴추린 뉴스

길림성 15 개 지역, 전국쌍옹모범도시 (현) 로 선정!

전국쌍옹모범도시 (현) 명단이 일전 발표되였는데 길림성에서는 15 개 시 (현) 가 선정되였다.

전국쌍옹모범도시 (현) 명단에 든 길림성 지역은 다음과 같다.

장춘시, 길림시, 통화시, 백성시, 매하구시, 연길시, 도남시, 류하현, 훈춘시, 사평시, 백산시, 돈화시, 장백조선족자치현, 정우현, 장령현.

/ 길림일보

길림성 입경관광 주문량 동기 대비 51% 증가

씨트립 (携程) 의 데이터에 따르면 4 월 16 일까지 5.1 절 련휴기간 길림성의 비행기표 주문량이 동기 대비 24% 늘어났고 길림성 입경관광 주문량은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그중 길림성의 주요 객원지는 북경, 할빈, 상해, 심양, 대련이고 길림성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목적지는 북경, 심양, 대련, 상해, 천진이였다.

/ 종합